

가정폭력 행위자를 위한 통합모델 집단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현미열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effect of a Group Therapy for the Offenders of Family Violence

Hyun, Mi-Yeul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ontribution of group therapy to the improvement of self-esteem, anger, stress coping and communication of those who were violent in to family. **Methods:** The research design was a one-group-pretest-posttest design in quasi-experimental research, and the period of this study was from March to October, 2005. Participants were 14 offenders who were ordered to be counseled according to 'the special exemption law for punishing domestic violence.' Group therapy was applied once a week for 8 weeks. Results were collected by using a questionnaire for self-esteem, anger, stress coping and communication. In the data analysis, Wilcoxon signed test with SPSS/WIN 12.0 program was used. **Results:** The scores of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from pre to post therapy. However, the scores of anger and stress coping were not significantly changed from pre to post therapy. **Conclusion:** This group therapy was effective in improving the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in offenders of family violence.

Key words: Family violence, Self confidence, Anger, Stress, Communication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가정폭력이란 가족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신체적인 해를 입히거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폭행, 구타를 가하는 것과 자원에 대한 접근과 개인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외부 세계와 고립시킴으로써 육체적, 심리적, 성적 학대를 일삼는 것을 말하며(Wallce & Seymor, 2001) 가정폭력으로 인한 건강문제와 사회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들 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는 모두 1차 집단 내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며 가정폭력 중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행하는 폭력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폭력문제가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의 일이고 공개적 관찰에

개방되기 어렵다는 사실 때문에 정확한 분포와 발생률에 따른 실태조사의 한계가 있지만 학계나 공식보고기관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3가구당 1가구의 비율로 부부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Yoo, 2003).

한국에서 가정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 여성의 전화가 개소한 1983년부터인데 그 이후 여러 여성 단체들이 국내의 가정폭력 실상을 알려내는 작업과 더불어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법률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Kim & Kim, 2002).

가정폭력 방지법 시행 이후 제기된 관심사는 사회적 개입의 범위가 피해자에 대한 지원중심의 서비스로부터 행위자에 대한 폭력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확장되고 있다(Shin, 2005)는 것이다. 즉, 가정폭력의 행위자를 단순히 형사처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실

주요어 : 가정폭력, 자존감, 분노, 스트레스, 의사소통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Hyun, Mi-Yeul

Department of Nursing, Che-Ju National University, 1 Ara 1-dong, Jeju 690-756, Korea

Tel: 82-64-754-3886 Fax: 82-64-702-2686 E-mail: hpeople@cheju.ac.kr

투고일 : 2008년 1월 23일 심사완료일 : 2008년 1월 23일 게재확정일 : 2008년 4월 21일

시하여 가정폭력의 재발과 가정해체로 인한 사회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의 문제는 부부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가족성원 전체 특히 함께 사는 자녀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데 이렇게 가정폭력을 목격한 자녀들 역시 다양한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내고(Wolfe & Jaffe, 1991) 폭력 학습의 기회로 인하여 자신의 생식가족 내에서도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Stith et al., 2000) 이는 잠재적으로 사회문제와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여겨진다(Lee, 2004). 그러므로 행위자들에 대한 적절한 개입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며 폭력의 대물림의 고리를 차단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어 제2의 가정폭력의 예방이 될 수도 있다(Sung & Jung, 2002).

현재까지의 가정폭력에 관한 국내의 선행 연구를 보면 주로 가정폭력의 실태와 원인,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조치가 확보된 시점부터 가정폭력 행위자들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 가능해지면서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연구와 행위자 프로그램들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폭력을 당하면서도 남편과 헤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폭력을 치료한 후 가정생활을 지속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볼 때(Edelson & Tolman, 1992) 가정폭력 행위자 프로그램은 가정 내 폭력을 근절하여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절실하다(Kim, 2006).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여성운동가들이 아내구타 문제를 제기하여 매맞는 아내들에 대한 피난처 제공으로 원조가 시작되었고, 1970년대 말부터는 아내구타 남편에 대한 개입프로그램으로 확대되면서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폭력남편 법정명령 프로그램이 대략 200여 개 존재한다(Lee, 2004).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론적 모델을 선택한다는 것은 가정폭력의 원인을 규정하는 방식으로써 개입방법과 목표지향성을 결정(Edelson & Tolman, 1994)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Steinmetz (1980)가 분류한 가정폭력을 보는 시각은 크게 개인내적 이론, 사회심리적 이론, 사회문화적 이론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Kim, 2006에 인용됨). 개인내적 이론은 가정폭력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접근법으로 초기 발달상의 결함으로부터 초래된 심인적 문제를 폭력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행위자들의 심리기저에는 우울, 낮은 자아존중감, 손상된 자아기능, 공격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요소들

은 배우자 폭행에 허용적이 된다는 것이다. 사회심리적 이론은 조직과 개인과의 상호작용, 사회환경, 집단, 타인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타인과 자신의 태도 등에서 가정폭력의 원인을 모색하려는 입장이다. 대표적 이론인 사회학습 및 역할 모형이론은 폭력은 학습된 행동의 결과라고 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재학습할 수 있게 한다. 사회문화적 이론은 폭력을 가치, 제도 등과 같은 사회적, 거시적 수준에서 설명하며 체계이론과 페미니스트 이론이 이에 속한다. 이상과 같이 가정폭력의 원인론에 대한 각각의 시각은 치료초점과 내용이 상이하여 단일접근은 치료의 초점이 지엽적이고 일차원적인 수준에 그칠 우려가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가정폭력 행위자 집단 치료 프로그램은 인지행동 이론을 적용한 Choi (2001), 인지행동 이론과 의사소통 이론을 적용한 Kwon과 Chun (2001), 여권주의 이론과 인지행동 이론을 중점적으로 사용한 Lee (2003)의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가정폭력 발생이 개인심리, 사회, 문화적 차원에 의한 다요인적 원인에 있는 만큼 다차원적인 통합이론 모델로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해 충분한 치료개입보다는 한두 요인의 측면만을 고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Kim, 2006). 그러나 가정폭력 행위자를 위한 이론적 통합모델을 활용한 집단상담을 실시하여 효과를 보고자 시도한 연구는 한두 편에 불과하다.

가정폭력 행위자들의 정서적 특성을 연구한 학자들은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자존감이 낮고 분노수준이 높으며 자신의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한다고 한다(Saunders, Lynch, Grayson, & Linz, 1987). 국내 연구에서도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을 행위자의 낮은 자존감과 배우자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방법으로 행위자가 폭력사용을 선택하여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Yoo, 2003)가 있고 Kwon과 Chun (2001)의 인지행동적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과 Kim (2002)의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행위자들의 자존감이 개선됨을 보여주었다.

분노와 폭력 간의 관계를 제시하는 연구에 의하면 아내를 구타하는 남성이 다른 어떤 집단 남성보다 적대감이 높았다(Maiuro, Cahn, & Vitaliano, 1986). Yeon (2000)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일수록 아내를 구타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하면서 화는 가정폭력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또한 가정폭력의 중요한 원인이다. Gelles (Lee, 2003에 인용됨)에 의하면, 개인이 가정이나 사회 내에서 스트레스 요인을 많이 접할수록,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수록 가정 내에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커진다. Lee (2003)는 여성주의적 인지행동 접근에서 분노와 스트레스 정도가 개선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매체가 의사소통이다. Song (1985)의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문제가족 부부들은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다. 또한 Kim과 Lee (2002) (Lee, 2003에 인용됨)의 연구에서도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 부부폭력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폭력남성들은 아내에게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잘 전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내와 대화를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Maiuro et al., 1986).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통합 모델의 치료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행위자들의 자존감과 분노, 스트레스와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 가정폭력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이 활발히 개발되고 여러 기관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과정에서 실제로 운영된 행위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실제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원에서 기소유예를 받고 상담소에 위탁된 가정폭력 행위자들을 위한 통합 모델 치료프로그램이 행위자들의 자존감과 행동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라는 문제에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적용결과와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다.

2. 용어의 정의

1) 가정폭력 행위자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가정폭력 행위자 집단치료 프로그램

가정폭력은 개인 내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포괄한 이론적 통합모델의 치료 프로그램으로 주 1회 3시간씩 8주간 시행한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상담명령처분을 받는 행위자의 수가 한정적이고 일정시간 내에 상담과정 수료를 해야하는 이유 등으로 대조군 설정이 어려워 단일군 사전-사후 실험설계를 사용하였다. 실험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변수를 고려하지 못하였고 표본의 수가 적으며 일 지역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본 것으로 연구 결과를 확대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대상으로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자존감과 분노, 스트레스 대처와 의사소통의 차이를 비교하는 유사실험연구로서 단일군 사전-사후 실험설계이다.

2. 연구 대상자 및 표집 방법

연구 대상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신고가 되어 J지방법원으로부터 상담위탁 명령을 받은 14명이다.

2005년 3월부터 8주간, 9월부터 8주간 두 차례에 걸쳐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회기당 참가인원은 가정폭력 행위자는 각 7명, 집단운영자 1명, 보조운영자 1명, 보조상담원 2명으로 이루어졌다.

집단치료 프로그램 전에 사전 면접과 개별상담이 2차례에 걸쳐 선행되었으며, 측정도구는 집단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첫 날과 8회기의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마지막 날에 자가기입하도록 하였다.

3. 연구 도구

1) 가정폭력 행위자를 위한 집단 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통합 모델 프로그램 구성은 가정폭력의 다요인적 원인을 반영한 Mathews (2000)의 가정폭력 가해자 집단 프로그램을 토대로 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론의 통합모델 적용은 정신역동 모델에서 행위자의 개인 특성에 기반한 원인 이해에 윤곽을 주고 사회학습이론에 의한 분석은 폭력에 대한 구체적 개입에 필요한 틀을 제공해주게 된다. 아울러 여성주의 이론을 통해서는 폭력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개선하고 가족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개입하는 모델이라 볼 수 있다(Murphy & Baxter, 1997).

프로그램의 목표는 행위자의 폭력 행동을 근절하고, 비폭력적인 대안행동을 학습하고 훈련한다. 행위자의 심리적 기능을 향상시키며, 행위자 부부관계를 향상시킨다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집단상담 전문가 2인이 진행하였으며 연구자는 집단의 보조운영자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Table 1. Contents of Group Therapy for Family Violent Offenders

Session	Contents
1	Rapport formation Introduce goals, progress and rules of the group Educate the domestic violence Share their personal domestic violence
2	Education on type of violence & method of time-out Share their experiences
3	Education on the wheel of control and rule Fill up the peace house and abuse house
4	Education on the self-monitoring and self-control Be aware of situational analysis and violence signal Share their experiences
5	Education on stress and nonviolent strategies Share their experiences
6	Education on the speaking and listening Check their communication style Role play the expression of emotion Share their experiences
7	Building of self-esteem and healthy relation Share their experiences
8	Check what they did and remaining problems Building strategy to maintain the nonviolent strategies

프로그램은 주 1회 3시간씩 8회기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중간에 10분간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각 회기마다 준비한 교육자료를 중심으로 집단치료 진행자가 20여분간 주제를 다루고 이후 주제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발표하게 하여 집단원간에 자연스럽게 경험을 나누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Table 1 과 같다.

1회기에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집단원 간의 관계형성을 목표로 집단 구성원에 대한 자기소개와 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방식을 소개하고 집단상담 장면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에 대해 동의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가정폭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제시하고 사례와 비교하여 자신의 폭력상황 나누기를 하였다. 2회기에는 폭력의 유형과 일시중단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트레스 상황시에 일시중단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로 진행하였다. 3회기에 통제와 지배의 수레바퀴에 대한 주제를 나누며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배우자를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4회기에는 자기관찰과 통제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5회기에 스트레스와 비폭력학습훈련을 실시하여 스트레스가 폭력적인 행동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알고 스트레스 관리기술을 증진하도록 하였다. 6회기에 듣기와 말하기에 대해 교육하고 부부간의 의사소통 증진의 중요성과 방법을 익히도록 하였다. 7회기에는 자존감과 건강한 관계에 대해 교육

하고 부부관계의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보도록 하였다. 8회기에 나의 현재 상황을 돌아보고 비폭력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나누며 앞으로의 부부관계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의 목표에 따라 진행순서와 내용을 완전하게 구조화시키지 않고 집단의 역동에 따라 유연하게 프로그램의 내용을 조정하면서 진행하였고 각 회기 이후 진행자와 관찰자간의 평가시간을 갖고 그 평가에 따라 다음 회기에 반영하며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 자존감 측정도구

자존감 척도는 Rosenberg (1965)의 한국어판으로 Chun (197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0개 문항의 4점 척도로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나타내는 3개 문항을 포함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76 이었다.

3) 분노 측정도구

분노는 Spielberger와 그의 동료들(1983)이 개발한 Trait Anger Scale (TAS)를 사용하였다. 분노기질이란 얼마나 자주 화난 기분을 느끼는가를 말한다. 분노기질 점수가 높은 사람은 어떤 상황을 화를 내게 만드는 자극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원래 TAS는 1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를 내는 기질(Anger temperament)과 자극에 대해 화를 내는 반응(Anger reaction)으로 내용이 짜여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e (2003)가 우리 문화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여섯 문항을 추출하여 만든 분노척도를 사용하였다. 여섯 문항은 기질을 묻는 문항과 반응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정말 그렇다 4점으로 응답범주를 4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Lee (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69, 본 연구에서는 .71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스트레스 대처 기제 측정도구

스트레스는 개인이 스트레스에 대하여 반응하는 태도나 방법으로서 대처기제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Lazarus와 Folkman이 개발한 The Ways of Coping Checklist로서 본 연구에서는 Lee (2003)의 연구에서 일곱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정말 그렇다 4점으로 응답범주를 4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Lee (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2,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1 이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Offenders of Family Violence

Variables	Categories	N
Sex	Male	13
	Female	1
Age	30-39	6
	40-49	6
	50 or more	2
Education level	Over college	5
	High	8
	Middle	1
Marital status	First marriage	10
	Divorced	2
	Second marriage	2
Religion	Yes	7
	No	7
Job	Independent enterprise	7
	Company employee	3
	Building industry	3
	Housewife	1

5) 의사소통 측정도구

의사소통은 McCubbin과 McCubbin, Thompson이 1996년 개발한 가족문제해결 의사소통 척도 중 Lee (2003)가 그의 연구에서 10문항을 추출하여 만든 의사소통 척도를 사용하였다.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원만한 것을 의미한다. Lee (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5,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6이었다.

4.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집단치료 프로그램 전후의 차이검정을 비모수검정인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남자가 13명, 여자가 1명이었다. 평균연령은 42.6세였으며 교육정도는 대졸 5명, 고졸 8명, 중졸 1명이었다. 종교는 7명이 가지고 있었고 결혼상태는 초혼이 10명, 이혼 2명, 재혼한 경우 2명이었다. 직업은 자영업 7명, 건설업 3명, 회사원 3명, 주부 1명이었다(Table 2).

Table 3. Comparison of Self-esteem, Anger, Stress Coping and Communication Scores before and after Group Therapy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Z	p
	Mean	SD	Mean	SD		
Self esteem	26.93	2.49	30.29	2.36	-3.209	.001
Anger	15.57	2.53	13.07	1.43	-2.598	.009
Stress coping	16.93	3.19	16.71	2.43	-0.418	.676
Communication	18.36	3.02	21.36	1.64	-2.836	.005

2. 자존감

자존감은 프로그램 적용 전 26.93 ± 2.49 점에서 적용 후 30.29 ± 2.36 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z = -3.209$, $p = .001$) (Table 3).

3. 분노

분노는 프로그램 적용 전 15.57 ± 2.53 점에서 적용 후 13.07 ± 1.43 점으로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 = -2.598$, $p = .009$) (Table 3).

4. 스트레스 대처기제

스트레스 대처기제 점수는 프로그램 적용 전 16.93 ± 3.19 점에서 적용 후 16.71 ± 2.43 점으로 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z = -0.418$, $p = .676$) (Table 3).

5. 의사소통

의사소통 점수는 프로그램 적용 전 18.36 ± 3.02 점, 적용 후 21.36 ± 1.64 점으로 보다 나아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z = -2.836$, $p = .005$) (Table 3).

논 의

가정폭력은 부부가 처한 인구학적·생태학적·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인 특징에 따라 가정폭력의 양상이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그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원인을 하나의 관점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나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크게 개인심리학적·사회심리학적·사회구조적인 것에 주요한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Satir와 Baldwin (1983)은 자존감을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가지는 사랑과 존중이라고 하였으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배우자의 차이를 인정하는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배우자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Seo (2005)에 의하면 자존감은 결혼생활의 실패와 성공에 중요한 기여요인으로 간주되며 자존감이 낮은 남편들은 자기표현능력이 낮고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지며 낮은 효능감을 보인다고 한다.

Bellavial과 Murray (2003), Kim, Kim과 Song (2000)의 연구에 의하면 행위자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감정폭발이 잘 되고 아내 폭력을 자주한다고 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느끼고 어떤 상황에 대해 위협을 더 많이 느낌으로서 폭력을 자신의 주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참가한 행위자들의 자존감 점수는 프로그램 전 26.92점,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67.3점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동일한 측정도구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와 Park (2003)의 연구에서는 70.08점, Choi (1999)의 연구에서는 70.03점으로 측정되었다. Chang과 Kim (2004)의 연구에서 가정폭력 행위자 217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자존감 점수는 27.45점으로 본 연구의 측정결과와 유사하다. 물론 행위자들은 단일그룹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며 행위자의 유형에 따라 아내에게만 폭력을 행사하는 1 유형에 속하는 그룹은 자존감이 높은 편이고 경계선적 유형인 2 유형, 보편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반사회성인 3 유형의 경우는 자존감이 낮다고 설명되고 있다(Holtzworth-Munroe & Stuart, 1994).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적용 후 행위자들의 자존감 점수는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는 Kim과 Kim의 연구(2002), Seo (2005)의 연구에서와 유사한 결과이다. 상담자들은 자신의 폭력행위로 말미암아 법적 구속을 받으면서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행위자들에게 친절한 관심을 보이고 편안함을 느끼도록 배려하는 일차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이 어린 시절에 경험하였을지도 모르는 상처를 돌아보도록 하고 치유를 도모함과 동시에 평소 남편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던 아내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남성의 자존심을 유지하려 위협이나 욕설, 공격행위를 사용해 왔다는 자각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아울러 행위자들은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도록 하는 과제를 수행하며 부부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존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행위자들의 분노는 프로그램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Lee (2003)의 연구, Lee (2004)의 연구 결과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 Kim과 Kim의 연구(2003)에서도 프로그램 적용 후 적대감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분노와 적대감은 종종 혼용되기도 하는데 분노는 정서적인 부분을, 적대감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는 태도를 말한다.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비폭력적인 남성들보다 분노수위가 높기도 하고 분노조절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화가 나면 폭력을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어(Kim, 2005)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성역할 사회화를 거친 행위자들의 신념을 변화시키는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Dutton (1995)은 분노를 애착과 관련하여 설명하면서 남편의 분노는 아내가 떠날지도 모른다고 인지할 때 증가한다고 보았다. 여성주의자들은 행위자들의 분노수준이 높다고 보고하는 것은 그들의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식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추후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가정폭력 행위자들의 분노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도 의의가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스트레스와 폭력이 가지는 높은 관련성을 증명하고 있다(Jung, 1997).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남성들이 보다 폭력적이라고 한다(Kim & Choi, 2004). 스트레스 이론에 의하면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인지적 평가 및 사회적 지원, 성격변인 등이 스트레스 지각에 중요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므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대처기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 적용 후 스트레스 대처 기제에 대한 변화가 매우 미약하게 나타났다. Lee (2004)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대처 기제에 대한 변화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보아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회기에서 교육 내용을 좀 더 보강하고 과제활동을 추가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처능력의 획득여부를 실제로 확인하는 작업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Jung (1997)의 연구에 의하면 행위자의 가정환경 변인보다는 스트레스 변인이 가정폭력에 대한 영향력이 더 높게 나온 바 행위자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의사소통 수준이 낮을수록 아내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학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Jeon, & Lee, 1992). 의사소통이 잘된다는 것은 단순히 의사표현의 문제만이 아니라 평소 부부가 얼마나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는가, 부부간에 얼마나 신뢰하고 친밀감을 느끼는가와 같은 부부관계의 질을 말하는 것이다.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은 부부가 적대감을 고조시키고 폭력을 야기하는 부정적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내폭행이 일

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Kim & Choi, 2004). Satir와 Baldwin (1983)은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치적 의사소통 유형과 자기존중향상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eo, 2005에 인용됨). 따라서 가정폭력 행위자 부부에게는 의사소통 이면에 흐르는 감정에 대한 자각을 통해 배우자와 맺고 있는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자각하여 과거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고 자신의 내면적 감정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기존중이 향상되고 부부 적응이 향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적용 후 의사소통 수준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Kim과 Kim (2002), Lee (2003), Lee (2004)의 연구에서와 동일하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감정, 자기노출, 세력을 은밀하게 통제하여 표현적 역할을 하며 대인관계를 중시하도록 사회화되는 반면 남성은 사고, 추리, 문제해결, 세력을 외현적으로 통제하여 도구적 역할을 하며 대인관계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도록 사회화되었다(Kim, 2005).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유형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갈등과 문제해결은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말하기, 듣기 회기를 통하여 남녀의 차이를 인식하고 감정표현 방법을 익히도록 한 것이 의사소통 수준 개선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로 가정폭력 행위자들에게 실시한 집단치료 프로그램이 자존감과 의사소통수준을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간호실무자들이 통합적 모델을 활용한 집단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정폭력 행위자들에게 자존감을 증진시키고 분노를 감소시키며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결 론

1. 결론

본 연구는 가정폭력 원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기초로 하여 가정폭력 행위자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연구 설계는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에 의한 유사실험연구로서 2005년 3월부터 10월까지 J지방법원으로부터 상담위탁 명령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 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상 대조군 설정이 어려워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통합적 모델을 이용한 가정 폭력 행위자 집단치료 프로그램은 Mathews (2000)의 모델을 국내실정에

맞게 구성하였으며 총 8회기로 매 회기당 3시간씩 주 1회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는 자존감과 분노, 스트레스 대처 기제, 의사소통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SPSS/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프로그램 효과 전후 차이 검정은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가 13명 여자가 1명, 평균연령은 42.6세였으며 교육정도는 대졸 5명, 고졸 8명, 중졸 1명이었다. 종교는 7명이 가지고 있었고 결혼상태는 초혼인 경우가 10명, 이혼 2명, 재혼한 경우가 2명이었다. 직업은 자영업 7명, 건설업 3명, 회사원 3명, 주부 1명이었다.

둘째, 프로그램 적용 후 자존감 점수가 26.93 ± 2.49 점에서 30.29 ± 2.36 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z = -3.209, p = .001$).

셋째, 분노는 프로그램 적용 전 15.57 ± 2.53 점에서 적용 후 13.07 ± 1.43 점으로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 = -2.598, p = .009$).

넷째, 스트레스 대처 기제 점수는 프로그램 적용 전 16.93 ± 3.19 점에서 적용 후 16.71 ± 2.43 점으로 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z = -0.418, p = .676$).

다섯째, 의사소통 점수는 프로그램 적용 전 18.35 ± 3.02 점, 적용 후 21.36 ± 1.64 점으로보다 나아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z = -2.836, p = .005$).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실시한 가정폭력 행위자 집단치료 프로그램은 행위자들의 자존감과 의사소통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 간호중재 방법으로 적용가능하다고 사료된다.

2.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폭력 행위자 대상의 집단치료 프로그램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보다 많은 대상을 확보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프로그램이 행위자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연구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행위자들의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REFERENCES

- Bellavial, G., & Murray, S. (2003). Did I do that? Self-esteem related differences in reactions to romantic partner's moods. *Personal Relationship, 10*, 77-95.

- Chang, H. S., & Kim, Y. S. (2004). A typology of marital violent men: Testing the three batterer subtypes derived from theor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6, 303-325.
- Choi, H. R. (1999). A study on college students self-esteem, depression and family self.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therapy*, 11, 183-197.
- Choi, S. L. (2001).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ognitive behavioral model to reduce abusing behavior of Korean wife abuser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7, 275-311.
- Chu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Study*, 10, 109-129.
- Dutton, D. G. (1995). Intimate abusiveness. *Clinical Psychology*, 2, 207-224.
- Edelson, J. L., & Tolman, R. M. (1992). *Intervening for men who batter: An ecological approach*.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Edelson, J. L., & Tolman, R. M. (1994). *Treating men who batter: Theory, practice and programs*. New York: Springer Pub. Co.
- Holtzworth-Munroe, A. & Stuart, G. L. (1994). Typologies of male batterers: Three subtypes and the differences among them. *Psychological Bulletin*, 116, 476-497.
- Jung, S. Y. (1997). *Study about factors affecting domestic violence -Centering around home environment and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uwon.
- Kim, D. S., Kim, J. O., & Song, J. A.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mmunication style and marital violenc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8, 1-16.
- Kim, J. O., Jeon, H. M., & Lee, H. H. (1992). The effects of self-esteem, marital communication and cohesion on the wife abuse. *Journal of the Women's Problem Research Institute*, 20, 21-44.
- Kim, J. Y., & Choi, S. J. (2004). Why does wife-assault occur?: An integrated model study for influences of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wife-assault of husband. *Korean Journal of Society & Personal Psychology*, 18, 77-95.
- Kim, K. S., & Kim, J. R. (2002).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domestic violence offenders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Family Relations*, 7, 137-158.
- Kim, M. Y. (2006). Effects of group intervention programs for the offenders of family violenc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8, 519-546.
- Kim, S. I. (2005). Relations of family violence, gender role socialization, and school viol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 215-241.
- Kwon, J. S., & Chun, S. K. (2001). A study on the group intervention for family violent offende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3, 36-63.
- Lee, J. E., & Park, H. R. (2003). Body-related attitude, self-esteem and eating attitude i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2, 603-611.
- Lee, J. S. (2004). *Effects of Batterer treatment program on relapse preven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 Lee, S. W. (2003). *A study for development of batterer treatment program of domestic violence and its effectiv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Maiuro, R. D., Cahn, T. S., & Vitaliano, P. P. (1986). Assertiveness deficits and hostility in domestically violent men. *Violence and Victims*, 1, 279-289.
- Mathews, D. J. (2000). *Group counselling for family violent offenders*. Seoul: Nanumchulpasa.
- Murphy, C. M., & Baxter, V. A. (1997). Motivating batterers to change in the treatment contex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 607-61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tir, V., & Baldwin, M. (1983). *Satir step by step: A guide to creating change in families*. Palo Alto: Science and Behavior Book, Inc.
- Saunders, D. G., Lynch, A. B., Grayson, M., & Linz, D. (1987). The inventory of beliefs about wife beating: The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a measure of beliefs and attitudes. *Violence and Victims*, 2, 39-57.
- Seo, H. S. (2005). The study on the effect of marital group counseling program to improve the self-esteem and a marital couples enhancing of domestic family violence - Centered on V. Satir's theory of growth model-.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0, 25-41.
- Shin, B. M. (2005). *Effects of group intervention programs for the offenders of family violence. -Centering of conflict coping and dysfunctional communi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 Spielberger, C. D., Jacobs, G. A., Russell, S., & Crane, R. S. (1983).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scale. *Advanced Personal Assessment*, 2, 159-187.
- Stith, S., Rosen, K., Middleton, K., Busch, A., Lundeberg, K., & Carlton, R. (2000).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pouse abuse: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640-654.
- Sung, J. H., & Jung, M. J. (2002). The family counselling education program for family violence assailant. *Journal of Human Ecology*, 3(2), 23-42.
- Wallace, D., & Seymour, A. (2001). Domestic violence. In G. Coleman, M. Gaboury, M. Murray, & A. Seymour (Eds.), *1999 National Victim Assistance Academy* (pp. 98-112).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Wolfe, D., & Jaffe, P. (1991). Child abuse and family violence as determinants of child psychopathology.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3, 282-299.
- Yeon, S. J. (2000). *Attitudes toward violence among Koreans*.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Yoo, T. S. (2003).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domestic viol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